

지금 시작하는 엄마표 미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표 이후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변화 등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을 본격적인 변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게는 현재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멀어도 대학 진학 시에 닥칠 일이며, 이는 진학·진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학부모에게 참고가 될 만한 미래교육에 대해 소개합니다.

현재의 엄마에게 미래교육을 권하는 이유

현재의 엄마가 미래의 아이에게 미래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미래교육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는 인재로 교육하는 법을 찾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래에 행복한 인재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올 것인지 알아야, 그 미래에서 아이들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미래인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한 미래교육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교육은 현재 교육이다

공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추구하는 미래인재의 개념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시행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조건

- ✓ 인문학적 상상력
- ✓ 과학기술 창조력
- ✓ 바른 인성
- ✓ 새로운 지식 창조
- ✓ 다양한 지식 융합
- ✓ 새로운 가치 창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이는 세계 미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인재의 모습으로 꼽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인재로 훈련해 나가는 프로젝트 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자유학기제, 블록 수업 등 이러한 교육들은 결국 진학과도 연계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막연한 훗날의 목표가 아닌 바로 시작해야 하는 교육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창의융합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주어야 할까요?

4가지 미래인재 요건

1. 거시적인 사고
2. 사물관계를 창의적으로 융합
3. 주변 인물과 교감
4. 문제를 이끌어 적극적으로 해결

→ 거시사고력, 창의융합력, 소통교감력, 문제해결력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입시 전까지의 10여 년의 시간 동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이의 수준에 맞춰 이러한 4가지 미래능력을 키워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빌게이츠가 ‘세계 인류에게 정말 유용한 학문이다. 세계 어린이들이 이 학문을 많이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며 10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투자한 미래교육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빌 게이츠의 미래교육법 “빅 히스토리”

빅 히스토리 교육법이란?

후주 맥쿼리 대학의 데이비드 크리스천 교수가 창시한 이 교육법은 빌 게이츠가 1,000만 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애정을 가진 미래교육법으로 아이에게 인간이 알아낸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가장 유용한 학문 중 하나입니다.



빅 히스토리

빅 히스토리란 인간이 알아낸 모든 것을 거시적 시각에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적으로 인간이 알아낸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 시간적으로 인간이 알아낸 우주의 최초부터 인류의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을 ‘빅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도 빅 히스토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00곳에서 빅 히스토리를 교육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방과 후 수업으로 빅 히스토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빅 히스토리 교육법 내용

책장론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학문을 책장에 꽂힌 책을 빼고, 그 책을 펼쳐서 책 안에 적힌 내용을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면, 빅 히스토리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책장을 짠 후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구역을 구획한 다음 스스로 궁금한 분야를 선택하고 공부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빅 히스토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너무 많아서 다 알 수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삶을 살아가 때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만 획득하면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가 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사고력 훈련

빅 히스토리는 우주의 시작부터 인류의 미래를 8~10개의 틀로 시간을 나누어 제공합니다. 이 틀을 기준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나는 어떻게 여기에 있나요?”

“아주 먼 옛날에 우주가 생겨났고, 거기서 태양이 생겼어.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가 생겼는데 그 지구에서 처음엔 공룡이 살았고 지금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거야.”

이를 통해 아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틀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면서 고학년은 몇 장의 보고서, 중학생은 한 권의 스코랩북, 고등학생은 소논문으로 확장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수준에 따라 같은 이론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다 믿나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법

빅 히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말도 무작정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 이론 중에서 가치 있는 내용을 걸러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방법을 연습시킵니다.



수업 방식은 강연과 같은 일방적인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결하는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주변에서 얻는 수많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 후 가치 있는 내용을 얻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수동적, 수용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뜻입니다. 이런 의심은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미래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직접 빅 히스토리를 배워보자

빅 히스토리라는 용어가 낯설어 어려워 보이지만 경험해 본 아이들은 쉽게 이 매력적인 학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빅 히스토리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빅 히스토리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무료 교육 영상과 사진,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사이트이지만 크롬 앱을 활용하면 한글 번역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 (www.bighistoryproject.com/home)

(원문제공 : <지금 시작하는 엄마표 미래교육> 저자 이지은)